

退溪의 文學觀**

하리나 오가렉 초이(Halina Ogarek-Czój)*

저명한 유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은 한국의 역사상 주희(1130-1200)의 학설을 진정으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애의 대부분을 유학에 대한 주희의 해석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보급시킨 최초의 본격적인 학자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퇴계의 철학적 저작, 이기론에 대한 일원론적인 해석,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사단칠정론 등에 대하여 분석해 왔다. 조선에서 신유학이 주도적인 위치를 장악하는 데에 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또한 일본 신유학 사상의 발전(후지하라 세이카와 야마자키 안사이의 활동과 관련하여)에 퇴계가 끼친 영향에 관한 논문도 많이 있다. 퇴계의 철학적 논문들과 비교해 볼 때, 그의 문학 작품은 많은 주목을 끌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흔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우선, 퇴계의 시는 그의 철학 사상과 일치하고, 또한 유교적 문학 이론과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학자들은 시를 평가할 때 시의 심미적인 가치보다는 도덕적인 특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한다. 그들은 시가 마음의 상태와 사회적 정서를 독특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민요는 지배자의 과오나 신하의 타락상을 비판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 정서를 반영한다. 따라서 민요는 지배자에 대한 경고나 충고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찰해야 한다. 유학

* 폴란드 바르샤바대학 교수

** 이 논문은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임

자들의 문학관에 의하면, 문학 작품 중에서 특히 시는 개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듬을 수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시가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묘사할 때에는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한다. 『논어』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 보도록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詩經』의 삼백 편의 시를 한 마디로 포괄하여 이야기한다면, ‘생각에 邪惡함이 없는 것’이다(『論語』 <爲政篇>).”

공자는 『시경』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하였고,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공부하도록 충고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왜 『시경』을 공부하지 않는가? 시는 사람의 감흥을 일으켜 주고, 사물을 올바르게 보게 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며, 또한 은근히 정치를 비판하게 한다.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배울 수 있으며, 새나 짐승, 초목의 이름도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論語』 <陽貨篇>).”

유학자들은 시를 평가할 때 시가 사회의 도덕적인 발달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유학자가 쓴 문학 이론의 정수는 衛宏이 쓴 것으로 추측되는 『시경』의 “大序”라고 말할 수 있다. 혹자는 그것을 공자 자신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공자의 제자인 子夏가 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시경』의 “大序”에서 몇 구절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시란 뜻을 나타낸 것이다. 마음 속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발음하면 시가 된다. 情이 속에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말로 해도 부족하면 그것을 길게 탄식하고, 탄식으로 부족하면 시로써 길게 노래한다. 노래로도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짓 발짓으로 춤을 추게 된다.

情이 소리로 나타나고 소리가 정교하게 결합될 때 音調라고 한다. 그런 音調들이 조화를 이룰 때 평화롭고 즐거우며 정치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그 音調가 부조화된 음을 이룰 때 원망이 생기고 노여움이 생기며 정치는 결국 혼란을 겪게 된다. 망해 가는 나라의 음악은 슬프고 또 내면으로 가라앉게 되며 백성들은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정확히 표현하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며 영혼을 감동시키는 데는 시보다 더 유익한 도구는 없다. 앞서 간 어진 임금님들이 시로써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의무를 조정하고, 효성과 존경심을 배양하며, 사회의 모든 인간 관계를 안정시키고, 교화를 아름답게 파급시키며, 풍속과 예의를 개선시켰다.

시에에는 여섯 가지의 부류(六義)가 있다. 하나는 風이고, 둘은 賦이고, 셋은 比이고, 넷은 興이고, 다섯은 雅이며, 여섯은 頌이다.”

주희는 “시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사물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감흥을 언어로 구체화시킨 것이다(『朱子大全』).”라고 말했다.

유학자들은 시를 인간의 의지, 감정, 지향성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 주희는 “시는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게 해 준다(『朱子大全』).”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는 인간의 감정과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속에는 사물의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를 통하여 사회에 존재하는 사물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 생활에서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시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국가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시어에는 좋은 의미를 지닌 것과 나쁜 의미를 지닌 것이 있기 때문에 시를 읽는 독자들은 시를 통하여 배울 만하거나, 혹은 남을 충고하고 훈계 할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인이 의도적으로 남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훈계하기 위하여 시를 쓰는 것은 아니다(『朱子大全』).”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유학자들의 문학 이론은 미적인 효과, 유용한 내용, 그리고 정제된 형식을 잘 조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주희는 문학에서 자연성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옛 사람들의 시는 일반적으로 그 표현이 자연스러웠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평가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작가들은 사상의 다양성만을 생각하여 그들의 작품이 산뜻하지도, 매끄럽지도 못하다(『朱子大全』).”라고 말했다.

퇴계 이황이 시를 이해하는 방식도 주희의 그것과 똑같다. 그는 한문으로는 “한시”를 그리고 한글로는 “가사”와 “시조”를 썼다. 그런데 이퇴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문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연시조의 형식을 지닌 “도산십이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퇴계는 “도산십이곡”의 발문인 “도산십이곡跋”에서 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도산십이곡”은 이황이 그의 만년인 63세에 쓴 것으로 그의 경험과 사상이 농축되어 있는 최고의 걸작이다. 이황은 “도산십이곡跋”에서 조선의 詩歌 가운데에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언어로 쓰여진 방탕한 내용의 시가가 많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한림별곡(1214-1249년 사이에 쓰여졌음)”을 그 한 예로 들면서, “한림별곡”은 비록 지식인들이 읊조리고 있지만, 음울하고 방탕하며, 또한 서투르고 경박한 노래로서 군자가 읊조리기엔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황은 藏六堂 李鼈(15세기의 조선 시인)이 쓴 “六歌”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는데, “도산십이곡”은 이 “六歌”를 본따서 지은 것이다. 시에 대한 이퇴계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방탕하고 무례한 태도를 거부하고 고상하고 온화한 태도를 좋아했음에 틀림없다.

“도산십이곡”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 부분인 “前六曲”은 퇴계의 의도에 따라 “言志”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퇴계는 현실과 직접 접촉한 후에 심상에 떠오른 감정, 신념, 의지 등을 묘사하고 있다. 뒷부분인 “後六曲”은 퇴계 스스로 “言學”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주로 학문, 독학, 덕의 수양, 그리고 경전 탐구 등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퇴계는 거기서 명상과 학문, 그리고 자연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사색 등으로 가득찬 자신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의 “前六曲”에서 一曲에서는 근심을, 二曲에서는 은퇴의 심경을, 三曲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자세와 당시 조선의 현실적인 인간 관계에 대한 긍정을, 四曲과 五曲에서는 자연에 대한 황홀감을 묘사하였다. 四曲에서는 저자가 임금을 사모하는 심경을 표현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이황에게 있어서 자연의 완전한 아름다움도 임금의 존재와는 비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갈매기 떼와 흰망아지를 언급한 “後六曲”의 五曲에서 퇴계가 어리석은 민중을 무시하고 먼 이상을 동경하는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높은 덕과 지혜를 지닌 현인과 대비하고 있다. 이 여섯 곡의 시들을 통하여 우리는 임금에 대한 전형적인 유학자의 태도와 자연을 노동이나 인간의 현실 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조와 찬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전형적인 유학자의 자연관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들은 사회를 서민 계급과 귀족 계급으로 양분하는 유학자의 사회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퇴계가 자신의 철학서에서 표현한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견해와 일치한다. 퇴계는 “사회 계층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기질의 차이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질에는 순수함과 순수하지 못함, 그리고 단순함과 복잡함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인간은 세가지의 계층으로 나뉘어진다. 최상층의 지식 계층은 지식과 행동이 天理에 완전히 부합된다. 중간 계층의 사람들은 완전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만, 행동이 좋지 못하다. 최하층의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사악하다.”라고 말했다.

이제 “도산십이곡”의 “前六曲” 중에서 四曲과 五曲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四曲

유난(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이 듣기 좋고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이 보기 좋다.
 이중에 저 한 미인(美人)을 더욱 잊지 못하여라.

五曲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만고(萬古)에 푸르르며
 유수(流水)는 어찌하여 주야(晝夜)로 흐르는고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도산십이곡”의 “後六曲”의 내용을 살펴보면 七曲은 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탐독하는 즐거움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 八曲은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또한 자연 현상을 주의깊게 인식하기를, 十曲은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를, 十一曲은 늘 푸른 산과 영원히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활동하기를 권하고 있으며, 十二曲은 세월의 흐름과 늙음을 잊도록 해 주는 끊임없는 지적 활동을 찬양하고 있다. 九曲은 “도산십이곡”의 주된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거기에는 古人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려는 퇴계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퇴계가 비록 고인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없고, 또한 그들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도 직접 받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고인이 예던 길이 퇴계 앞에 놓여 있다.”는 것과 퇴계가 고인들의 저작 속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과 윤리규범들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옛 성현들의 저작은 공자나 맹자, 혹은 다른 옛 성현들과 퇴계를 포함한 당시의 유학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九曲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古人) 못 보지만
 고인(古人)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이하리.

퇴계는 九曲을 쓴 후에 그것을 이웃집에 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도덕적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 삼도록 하고 또한 아이들이 그 시의 가락에 따라 춤추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퇴계가 그 시를 교훈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가다듬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도산십이곡”은 인간 사회에서 문학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퇴계의 견해를 함축성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정통 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오늘날 퇴계의 저작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연을 단지 찬미와 관조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와 어리석은 백성과 상류 양반 지식층에 대한 그의 견해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만약 “도산십이곡”에 발문이 없었다면 그것은 다른 신유가 시인들에게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원 열 譯)